

WTO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 of WTO DDA Negotiations for Korean Economy

김 시 경 *

目	次
I. 서 론	IV.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II. 뉴라운드 출범과 세계무역환경	V. 결 론
III. DDA협상 주요쟁점	

I. 서 론

1990년대 초반부터 국제경제의 신조류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45년간이나 지속되었던 이념대결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념대결의 해소는 러시아의 등장 및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의 역할 재정립과 연결되었으며 세계의 정치·경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었고 이러한 대립 속에서도 세계경제는 미국 주도하의 자유무역체제로서 유지되어 왔고, 또한 이 자유무역체제를 지탱하여 온 기본정신이 GATT였다.¹⁾

이러한 GATT체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렸으며, 自國의 이익을 앞세우는 경제적 新중상주의, 多者間의 협상이 아닌 쌍무적인 협상체제로 국제무역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계경제질서는 GATT-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와 경제통합 및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지역주의의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중이다.

다자주의는 국가간 아무런 차별이 없이 상품,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

* 본 연구소 상임연구원,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1) GATT는 1995년 1월 1일부터 WTO가 됨.

진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를 주창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의는 내부 의존적 이어서 보호무역의 색채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域外국가보다 域內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을 강조함으로써 다자주의의 무차별 원칙에 저해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한편으로는 WTO를 중심으로한 뉴라운드, 즉 DDA(도하개발 아젠다)에 의한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다른편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즉 FTA가 세계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II. 뉴라운드 출범과 세계무역환경

뉴라운드란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GATT가 맹국이 새로 시작하려는 협상으로서 논의대상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 외에 공산품의 추가관세인하와 반덤핑협정 개정 등이다. 여기에서 뉴라운드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의미하며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DDA협상은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서 논의되어 온 공산품과 농업서비스 분야는 물론 투자, 경쟁정책, 환경,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도 협상대상으로 포괄, 전세계 무역의 틀을 새롭게 짜는 작업이다. 아직까지는 협상구도를 잡는 초기단계이지만 핵심사항인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미 국가간 또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그룹 간 눈치싸움이 대단하다. WTO회원국들은 2003년 9월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 제 5차 각료회의에서 DDA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었으나 농업개방을 둘러싼 국가간 대립으로 결렬되었다.

2001년 11월 14일 제 4차 WTO 각료회의가 21세기 多者무역의 틀을 짜는 뉴라운드 출범에 합의하였다. WTO는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뒤 1999년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 실패와 도하에서의 우여곡절 끝에 명실상부한 다자무역기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뉴라운드 협상 논의의 타결은 1999년 시애틀에 이어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도 협상타결에 실패한다면 WTO체제의 多者통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회원국들의 우려감이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하반기부터의 세계경제침체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각국의 의지가 결집되었고 2001년 9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에 대한 테러이후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배려가 어느 정도 행동으로 드러난 것도 뉴라운드 협상타결의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9년 시애틀 3차 WTO각료회의의 당시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그 동안 전세계로부터 미국 때문에 뉴라운드가 출범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따라서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상당한 효력을 발생시켰다.

끝으로 뉴라운드 출범의 이익과 손실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지역주의·보호주의 장벽이 해소될 수 있고 또한 세계경제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의 경우 첫째, 지적재산권 협정과 공중보건분야 목표 달성, 둘째, 환경문제 협상의제에서 배제, 셋째, 반덤핑협정 협상도출을 들 수 있다. 참고로 WTO각료 선언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WTO 각료선언문 주요내용

통신·교육·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	회원국들이 2002년 6월 30일까지 시장 개방 양허안을 제출하기로 합의
무역과 경쟁 정책	2003년 제 5차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경쟁부문에 대한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
반덤핑 남발 규제	반덤핑 남발에 따른 무역 왜곡 관행을 시정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 미국은 개도국의 반덤핑 남발 규제를 받아들이는 대신, 개도국들도 덤핑행위 개선을 촉구
농산물시장 개방	농산물 시장 대폭 개방, 국내보조금 대폭 감축
공산품 관세 인하	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대상품목의 확대
정부조달시장 투명성 확보	투명성 확보 위한 다자간 협상 개시
수산보조금 감축	수산보조금 감축·폐지를 위한 다자간 협상 시작

자료 : 외교통상부, 2001, 11.

III. DDA협상 주요쟁점

뉴라운드, 다시 말하면 DDA 출범과 관련된 3대 쟁점은 농산물시장개방, 반덤핑 협정개정 그리고 환경관련 의제 포함 여부이다.

첫째, 농산물시장개방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EU, 일본 등 농산물 수입국가는 각국실정에

맞는 농업시장개방 모델을 제시한 반면 케언즈 그룹, 즉 미국과 호주 등 농산물 수출국가들은 농산물도 공산품과 동일하게 폭넓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DDA 출범 이전인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농산물 협상은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협상이 가장 어려운 분야이다.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은 시장접근 환경개선, 수출보조금 단계감축·폐지 및 국내보조금 감축 등 세 가지이다. 2002년 6월 시장접근 분야회의에서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수출국 진영인 케언즈 그룹과 미국은 수출보조금의 철폐를 주장한 반면 EU와 한국 등 수입국측은 단계적인 감축에는 동의하지만 철폐에는 반대했다. 또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관세의 대폭감축도 제안하였는데 미국은 모든 농산물의 관세 상한선을 25%로 제한하는 '스위스 공식' 적용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케언즈 그룹은 선진국에 대해서는 미국제안을 적용하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125%로 정하지는 혼합방식을 제안하였다.

둘째, 반덤핑협정 개정의 경우 한국·EU 등은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 남발되고 있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불가"를 외치고 있다. 수출국들은 적용요건과 범위의 강화를 희망하고 있는 반면 수입국들은 기존의 협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덤핑 협정 개정과 관련된 것은 공산품으로서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 등으로 요약된다.

반덤핑조치의 남발을 막기 위해 WTO 협정을 개정하지는 주장에 대하여 미국은 홀로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의회는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미국대표단은 반덤핑 협정 개정이 슈퍼 301조 등 미국산업 보호장치를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²⁾

셋째, 환경관련외제 포함건은 EU는 환경오염이 심한 나라에 대한 교역제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들과 미국은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무역·환경분야와 관련하여 EU는 환경정책이 미흡한 나라에 대하여 무역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 기준의 강요'는 있을 수 없다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3대 쟁점 외에도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문제도 존재하고 있는데 서비스의 경우 수출국측은 전면개방을, 수입국측은 각국 상황 감안 후 단계적 부분개방을 지지하는 형편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공중보건)문제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어 '新 남북문제'로 까지 번질 상황이 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에이즈와 결핵 등 전염병 치료제를 값싸게 생산·보급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제별 주요내용과 쟁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미국 통상법 301조와 슈퍼 301조의 차이점은 前者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後者は USTR이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표-2> WTO도하라운드 협상의제별 주요내용과 쟁점

협상의제	주요내용	주요쟁점			일정
		구분	수출국	수입국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접근개선, 수출보조와 국내 보조감축을 목표 • 비교역적 관심(NTC)고려 	시장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상한 하향 조정 - 미국 : 25% - 케언즈그룹 : 선진국 25% 개발도상국 125% • 특별긴급관세제도 (세이프가드)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UR관세 체제유지 - 비교역적 관심 사항 (NTC)고려 • 긴급수입제한 제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방식수립 - 2003년 3월 • 양허안제출 - 5차 WTO 각료회의 이전
		보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조금 (그린박스)적용 범위, 요건강화 • 직불보조금 (블루박스)철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보조금확대 • 직불보조금유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시장의 추가적인개방 (유통, 금융, 운송, 관광 등 12개 분야 150여개 업종) • 기합의된 협상이이드라인 (2001.3)에 따라 협상 	• 전면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상황 감안 후 단계적 부분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안요청 - 2002년 6월 • 양허안제출 - 2003년 3월
비농산물 (공산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비관세장벽 감축·철폐 • 포괄적 분야를 대상 	• 관세·비관세 장벽 삭감 또는 철폐		• 최빈곤 개발도상국 이익고려	
반덤핑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 협정의 개선 및 명확화 • 수산부문의 보조금협상 	• 적용요건, 범위강화		• 기존협정유지	
분쟁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처리절차의 개선과 명확화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환경규범(MEAs)과의 관계검토 • 기타의제는 연구지속 				

자료 : 저자가 직접 작성. 2003. 11.

한편 2003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도하개발 아젠다, 즉 DDA협상을 중간점검 하였으나, 농업, 싱가포르 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차이로 결렬되었다. 직접적인 결렬요인은 투자,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소위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 협상개시를 주장하는 선진국들과 여기에 반대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이 크게 대립되었기 때문이다. EU와 같은 선진국들은 정부조달 투명성과 무역원

활화 등 2개 이슈만 다자규범화하는 양보안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어떠한 싱가포르 이슈도 공식협상의제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였다.³⁾

또한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협상 이슈에 있어서 선진국과 농산물수출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이 크게 달라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였는데 後者는 국내 및 수출보조의 대폭 감축 내지는 철폐와 시장접근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前者는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철폐, 생산제한 직접지불보조금 및 최소허용 보조금⁴⁾ 등의 급격한 감축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

EU는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 양보를 함으로써 농업분야 협상에서 농산물수출 개발도상국의 양보를 희망하였으나 이들 개발도상국들이 실질적인 협상이익을 위해 대폭적인 농업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진행이 사실상 성과가 없었다.

WTO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에는 또 다른 요소도 존재하였는데 DDA협상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따라 개발도상국들의 기대치와 요구가 증폭되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양 진영의 이익균형을 조정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IV. DDA협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1년 11월 WTO 각료 선언문 채택 이후 거의 3년 동안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협상이 있었는데 결국 2003년 9월 멕시코의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결렬되었다. 따라서 2001년 11월 최종 WTO 각료 선언문에 앞서 발표된 3차 초안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농업과 수산업은 새로운 협상체제의 출범에 따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은 수출시장의 확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 농·수산업

(1) 농업

농업분야에서 WTO회원국은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 농업보조금의 큰 폭 감축, 농산물

3) 최낙균, WTO칸쿤 각료회의의 의미와 그 대응, 전경련, 2003, 10, P.50.

4) 직접지불보조금(Blue Box), 최소허용 보조금(de-minimis).

수출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 3개항에 합의하였다. 원래 한국과 일본은 '농산물 시장 대폭(substantial)개방'이라는 용어 대신에 '점진적인(progressive)개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국내의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쌀 의무수입 물량(최소 시장접근)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었으나 WTO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대폭 개방원칙이 결정됨에 따라 쌀시장 전면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와 필리핀만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아무튼 쌀시장 전면 개방은 불가피해 졌는데 세계각국은 지난 1993년 12월 15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이미 농산물시장 전면 개방에 합의했었다. 다만 급격한 쌀시장 개방이 농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여 한국에 10년 동안의 유보기간을 주었는데 유보기간이 끝나는 2004년에 다시 협상을 벌여 2005년 이후의 쌀시장 개방 일정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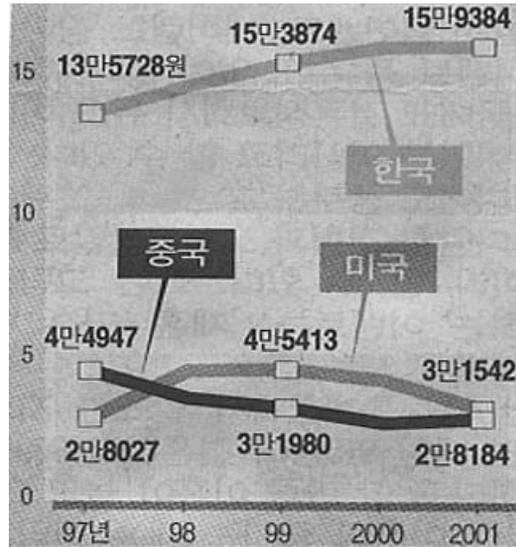
WTO협상의 방향은 관세인하와 함께 쌀시장 전면 개방, 그리고 농업보조금 축소에 맞춰져 있으며 WTO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역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쌀시장의 전면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수입쌀에는 400%가량의 관세를 부과(관세상당치)하여 국산쌀과 가격차이를 없앤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뉴질랜드를 포함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국에서 쌀이 남아도는데 식량안보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한국정부는 쌀뿐 아니라 전체 곡물의 자급률(28%)로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쌀만 가지고 보면 논리가 궁색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WTO협정 상 수매가를 계속 올릴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쌀재배 농가에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하는 논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1헥타르당 25만~35만원인 직불제 보조금으로는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없고 시장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방어대책도 될 수 없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한국 쌀농사의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1993년 12월 15일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곧바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국내가격과 국제시장 가격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경쟁력을 제고하였어야만 되었는데 정치 논리에 밀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곡 수매가는 1994년과 1995년 2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그 후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4~7%씩 인상되어 왔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3~4배였던 국내외의 쌀값격차는 2003년 가을에 와서 는 5~6배 정도로 더 벌어졌다.

5)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용어 중의 하나인 非교역적 관심품목(Non Trade Concerns)이란 자국농업의 적정보호와 식량안보적 차원에서 국내자급이 확보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역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품목을 말한다.

<그림-1> 한국중국미국의 쌀가격 추이비교



자료 : 농촌경제연구원, 2001. 11.

- 註 : 1) 한국은 농협중앙회의 중품 판매가격 1~7월 평균
 2) 중국은 MMA수입물량가격
 3) 미국은 캘리포니아 산 1등급 기준.

따라서 2004년도에 있을 쌀개방 재협상에 앞서 쌀의 품질을 높이는 대신 생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한국과 가까운 동북 3성 및 만주지역에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품종을 대량재배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쌀은 세계시장 가격보다 18~46% 낮아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2) 수산업

2001년도의 WTO 각료선언문에는 각국이 어민과 수산관련기업에 지급하고 있는 多者間 수산보조금 감축협상을 개시한다는 원칙이 포함되었다. 2003년 11월 현재까지 어떠한 수산보조금이 폐지 대상이 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내수산업계와 어민들은 긴장하고 있다. 어족자원감소와 일본·중국 등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산업계가 WTO 뉴라운드 출범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중 새로운 협상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총 187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營漁자금 등 어업경영지원 1785억원과 선원공제료 49억원 그리고 29억원의 어로시설 사업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국

내 어민의 가구 당 부채가 2001년 11월 평균 1386만원에 달하였고 더욱이 2003년 9월에 불어 닥친 태풍 '매미'에 의해 사상최대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조금 중단은 곧 절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어업경영지원자금 등 수산보조금 1873억원, 경유 등에 대한 조세감면액 4300억원 그리고 수산물관세 등 세 가지가 협상의 주요의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중 경유 등에 대한 조세감면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조세체계를 바꾸고 감면혜택 지원율을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산보조금 폐지와 관세 인하는 거의 불가피하며 수산물 관세는 현재의 18%에서 12%정도로 재조정이 요구되어 질 수 있다.

뉴라운드가 아니더라도 국내 수산업은 위기 상황에 있다. 연근해는 어족자원이 계속 줄어 들고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그칠 줄 모르며 더욱이 한일어업협상은 일본의 완강한 태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수산업의 생명줄인 원양어업은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표 이후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와 과도한 入漁料요구로 급속히 위축되는 중이다. 아무튼 국내수산업의 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국제환경에 의해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2. 제조업 및 기타산업

(1) 제조업

공산품은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세인하 그리고 비관세 장벽 철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은 우리나라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협상으로 반덤핑 발동요건이 강화되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수출시장의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정부는 WTO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의 반덤핑 제소자격을 박탈하고, 최소 덤핑마진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며 또한 재심 등 반덤핑 관련절차도 투명하게 바꾸어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아무튼 2001년 11월의 WTO 제 4차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획득한 가장 중요한 협상결과는 반덤핑과 공산품 관세인하 분야로서 공산품수출이 한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뉴라운드 협상출범이 한국경제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반덤핑 분야는 회원국끼리 가장 의견충돌이 심했던 분야의 하나로서 WTO 각료회의는 반덤핑 규범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은 2001년도의 경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반덤핑제소를 당하였는데 뉴라운드 본협상에서는 '반덤핑 제소 남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사실상 그동

안 반덤핑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 등 적지 않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수출기업으로서 큰 어려움이 줄어들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철강, 반도체 및 석유화학제품과 같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반덤핑규제 단골 품목에 올라 있어 협상 여하에 따라 한국의 대외수출은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산품 관세인하와 비관세 무역장벽의 철폐는 1947년 제네바 라운드⁶⁾ 이후 지금까지 다자간 협상의 기본적인 원칙이면서 가장 큰 성과였다. 2001년 11월 뉴라운드에서도 공산품 시장개방이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 한국이 뉴라운드 최대 수혜국중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 WTO 회원국의 관세율이 3분의 1로 내려가면 한국의 수출은 0.4~2.2%로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어놓았는데 2003년 들어서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조선 등을 중심으로한 수출은 호황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3년 10월에는 사상최대의 무역흑자를 시현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산품협상 타결 이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6~2.9%의 증가효과가 있어 적극적인 협상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끝으로 뉴라운드 타결에 따른 제조업 업종별 영향과 대응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동차 : - 환경 친화형 자동차 개발로 선진국 시장 공략
 - 국내 시장 전면 개방 부담
- 전 자 : - 중남미 등 반덤핑 공세 주춤, 신규시장개척
 - 하이닉스 반도체 통상마찰 완화 기대
- 섬 유 : - 쿼터제 폐지로 수출여건 호전
 - 후발개발도상국 저가 공세 피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
- 조 선 : - EU와의 소모적인 반덤핑논리 일단락
 - 특수선 위주로 공격적인 수주전략
- 철 강 : - 미국 반덤핑공세 차단효과
 - 수출확대 기대

(2) 기타산업

1) 서비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2000년 초부터 협상에 들어간 서비스분야는 2002년 3월

6) 제네바 라운드란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여해 관세를 주요 협상의제로한 1차 라운드를 말한다.

에 본격화된 WTO의 서비스부문 양허협상에서 한국의 법률, 의료, 교육, 통신과 시청각 등을 중심으로 개방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EU 및 일본 등 전세계 20여개국은 80여개 항목에 달하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제안서를 2001년도에 제출했다. 이들 국가들이 한국에게 공통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을 넣고있는 분야는 통신, 시청각, 법률, 의료와 교육 등 5개 이다. 우선 통신의 경우 한국정부가 기간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KT)의 외국인 투자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시청각분야에서는 국산영화를 연간 146일간 상영하도록 규정한 스크린 쿼터제도를 폐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편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변호사에 한해 법률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는 규정을 고쳐 외국법에 대한 자문을 허용하고 외국법률사무소 명칭사용을 허용하도록 주장하고 있고 또 현행 법에 따르면 학교는 학교법인만이, 병원은 국내 의사면허 소지자와 비영리법인만이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2) 투자 및 경쟁분야

투자·경쟁분야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이 마련되면 정부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다. 특히 투자분야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내국민 수준 대우와 경쟁법(공정거래법)의 국가간 동일적용이 추진되면 한국기업들의 개발도상국 진출 및 투자가 훨씬 간편해진다.

1980년대 말부터 한국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으나 투자에 관해 기업을 보호하는 해당국가의 법률미비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투자관련 법률 마련은 한국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지적재산권·공중보건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와 의약품 접근(공중보건)문제를 두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논란이 가열되었는데 개발도상국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에이즈와 결핵 등 전염병 치료제를 값싸게 생산·보급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과다한 요구로 신약개발 등에 거액을 투자한 국내의 제약회사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분야의 경우 중국 등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 및 소프트웨어 모조품에 대해서도 WTO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뉴라운드 출범과 함께 특허와 디자인 등 무형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

4) 무역·환경

무역과 환경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WTO의 기존규범과 다자환경규범의 무역관련

의무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무역·환경분야에선 환경정책이 미흡한 나라에 대해 무역규제를 하자고 EU가 강력히 주장하자 인도·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 기준의 강요'는 있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자환경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WTO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기업들은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환경규범을 어기고 무분별한 수출을 할 경우 우리도 WTO에 제소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V. 결 론

뉴라운드 출범으로 관세장벽완화와 반덤핑협정개정 등으로 자유무역이 확대되어 한국경제도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는 도하개발 아젠다(DDA)협상을 중간점검 하였으나, 농업과 싱가포르 이슈 등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 때문에 결렬되었다.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은 앞으로 DDA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을 예고하고 있으며 2004년 말로 예정된 타결시한을 지키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

그러나 칸쿤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었다고 하지만 국내 농업의 전면적인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미 WTO 각료회의 초안에서 밝혔듯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저율관세 의무수입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업개방의 원칙이 채택될 것은 분명하다.

WTO는 2005년 1월 1일로 잡혀있는 협상시한을 지키기 위해 2003년 12월 특별각료회의를 갖기로 하였는데 그만큼 세계교역의 자유화는 후퇴할 수 없는 명제이다. 세계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역의 자유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농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은 DDA 농업협상의 골격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2004년 말까지 쌀시장의 최소시장 접근확대 및 관세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양자협상을 통해 개발도상국 지위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되었다. 아무튼 수출지향적인 우리경제는 해외수출시장개척 및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하는 계기로서 DDA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있을 주요한 협상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DDA협상전략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며, 농업·제조업·서비스 등 모든 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서 향후 DDA협상의 급진전에 대비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대영, 뉴라운드 출범과 한국의 과제, 매일경제, 2001. 11. 15.
- (2) 유석형, 농산물시장 개방과 FTA, 파이낸셜 뉴스, 2003. 9. 24.
- (3)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11.
- (4) 정인교, 왕윤중,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 (5) 최낙균, WTO 칸쿤 각료회의의 의미와 그 대응, 전경련 10월호, 2003. 10.
- (6) 홍병기, 뉴라운드, 농산물개방 거센 압력, 중앙일보, 2001. 11. 12.
-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세계 주요국의 FTA추진동향 및 대응방안, 2002. 12.
- (8) 동아일보, 뉴라운드 출범, 2001. 11. 16.
- (9) 무역일보, WTO DDA·FTA흐름 주시해야, 2002. 12. 23.
- (10) 조선일보, WTO 신체제, 2001. 11. 14.
- (11) Park, Inn-won, East Asian Free Trade Area : A Policy Option for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5, No 1, Global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2002.

<ABSTRACT>

A Study on the Impact of WTO DDA Negotiations for Korean Economy

Si-Kyung Kim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impact of WTO(World Trade Organization) DDA(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for Korean Economy.

Since 1990, the special feature of international economy was disappearance of ideological conflict continued during 45 years from the end of World WarⅡ between U.S. & Soviet blocs.

The role of U.S. as a unique super-power in the world gave us many changes in world politics and economic situation.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since 1948, the year of establishment, played a major role with the purpose of doing liberalization of world trade notwithstanding several weak points. GATT became WTO in 1995 which is considered more powerful and strong to resolve trade conflict between nations.

GATT/WTO system based on multilateralism has been influenced severely by the appearance of neo-mercantilism and bilateral negotiations.

In other words, the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s characterized, in these days, by two trends : multilateralism by GATT/WTO and bilateralism based on economic integration and free trade agreement(FTA).

The liberalization of world trade is inevitable including agricultural products. For Korea, there is nothing for it but to rely on acceleration of readjustment in respect of agriculture, industry and services to prepare advantageous position concerning DDA negotiations.